

인쇄단지 · 기관뉴스

1) 동정

- ▶ 김성동 의원(한나라당)은 구립 13일 국회 의원회관 125호실에서 '종아책과 전자책, 그 공존과 상생'이라는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 ▶ 백석기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은 오는 1월 5일 오후 5시 출판문화회관 강당에서 '2011년 출판인 신년교례회'를 연다.
- ▶ 이상문 한국제지연합회 회장은 오는 1월 6일 오후 6시 호텔신라 영빈관에서 '2011년 제지인 신년인사회'를 연다.
- ▶ 김현덕 경기도인쇄문화협회 회장은 구립 14일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송준호 한성기획(주) 대표이사가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상을 수상했다.
- ▶ 신우철 한국스크린인쇄공업협회 회장은 구립 11일부터 12일까지 경주 켄싱턴리조트에서 송년의 밤 행사를 가졌다.
- ▶ 서상준 서울인쇄조합 산악회 회장은 구립 26일 제 133차 정기산행을 가졌다.
- ▶ 김종수 한울 대표는 구립 16일 한국출판 연구소 신임이사장에 선임됐다.

2) 부음

- ▶ 최청운 (주)동양잉크 회장이 지난해 11월 26일 별세했다.
- ▶ 김양국 신영인쇄종합상사 사장의 장인이 지난해 11월 18일 별세했다.
- ▶ 김정현 한국문화인쇄 사장의 부친이 구립 3일 별세했다.
- ▶ 황기철 동양정보문화사 사장의 모친이 구립 7일 별세했다.

3) 화족

- ▶ 전웅진 한국잡지협회 회장의 장남 병건 군이 구립 12일 전쟁기념관 뮤지엄웨딩홀에서 화족을 밝혔다.
- ▶ 박진호 해외정판사 사장의 장녀 진숙 양이 지난해 11월 27일 노블레스 웨딩컨벤션에서 화족을 밝혔다.
- ▶ 이승박 삼일문화정보(주) 사장의 장남 효신 군이 구립 18일 호텔 아카시아 웨딩홀에서 화족을 밝혔다.

2011년 인쇄인 신년인사회 1월 6일 오후 5시 인쇄정보센터서 개최

인쇄인들의 화합과 전전을 다짐하는 '2011년 인쇄인 신년인사회'가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홍우동),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이충원),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사장 조정석), 대한인쇄정보기술협회(회장 김진배) 공동 주최로 2011년 1월 6일 오후 5시 서울시 종구 쌍림동 인쇄정보센터 7층 강당에서 개최된다. 참가비는 없으며 관련 문의는 대한인쇄문화협회 사무국(02-335-5881)으로 하면 된다.

대한인쇄문화협회 · 청주고인쇄박물관, 코엑스에서 인쇄문화 홍보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홍우동)와 청주고인쇄박물관(관장 정준영)은 구립 15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코엑스홀에서 열린 2010 한국스타일 박람회(korea, the style 2010)장에 직지 및 인쇄문화 홍보관을 조성해 인쇄문화를 홍보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가 '한국적 상상력' 이란 주제로 개최한 이번 행사에 인협과 청주고인쇄박물관은 '직지홍보관'을 마련, 직지 영인본(하권), 복원본(상권)과 직지 금속활자 제작과정 디오라마, 직지 홍보 패널, 고인쇄 관련 유물 등을 전시해 직지의 인류문화사적 가치와 금속활자가 인류발달에 끼친 영향 등을 중점 홍보했다. 또 우리 전통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트렌드와 비전을 제시하고 인문학적 가치를 전달하는 이번 행사에 직지의 전통적 가치를 넘어 창조적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금속활자판 인쇄체험도 실시했다.

연합회 정기 이사회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이충원)는 지난해 11월 26일 서울인쇄센터 7층 강당에서 2010년도 제11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충원 회장은 개회사에서 "먼 길에



도 참석해 주신 이사님들께 감사하다”고 말하며 “경기가 불황이고 어려울 때일수록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해서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으로 인하여 애로가 많겠지만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날 이사회는 개회사, 전차 의사록 낭독, 업무 집행상황 보고, 3/4분기 재무제표 보고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대한인쇄문화협회, 인쇄전문인력 양성교육 수료식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홍우동)는 지난해 11월 25일 인쇄문화관 교육관에서 국고 지원사업으로 실시한 인쇄전문인력 양성 교육 수료식을 가졌다.

이날 인쇄물 수출전문과 과정 수료식에서 김남수 부회장은 “수료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이번 교육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인쇄업계 발전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수료식에서는 김영란(북산책 대표)씨가 대표로 수료증을 받았다. 한편 인협은 지난해 11월 4일부터 인쇄물 편집교정 실무과정(매주 화요일), 인쇄물 수출전문가 과정(매주 목요일) 등 2개 과목을 개설해 4주간 교육을 실시했다.



전산정보부회 간사장에 김영길 사장 선임



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전산정보부회는 구립 1일 인쇄정보센터 7층 강당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김영길 대영전산품 사장을 간사장으로 선임하는 것을 만장 일치로 결의했다.

김원희 간사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7년 동안 간사장을 역임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전산부회 간사님들과 조합 임원님들의 도움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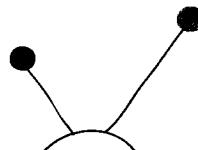
조정석 서울인쇄정보조합 이사장은 격려사를 통해 “지난 4년 동안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다. 대과없이 마치신 김원희 간사장님께 박수를 보낸다”라며 “그동안 서울인

④ 법인

- ▶ 이에이피(주) 대표이사 이영호는 최근 상호를 (주)동인에이피로 변경했다.
- ▶ (주)삼성프린팅(대표이사 유정기)은 최근 상호를 (주)삼성피아이티로 변경했다.
- ▶ 거성그래픽정보(대표 윤태종)는 최근 상호를 인쇄출판 거성으로 변경하고, 사업장도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101-30 상록빌딩 102호로 이전했다.

⑤ 이전

- ▶ 성도GL/성도솔루원(대표 김상래)은 2011년 1월 사업장을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1가 14-18 서울숲 코오롱디지털타워3차 12층으로 이전한다. 전화번호는 이전과 같이 02-3406-7000이다.
- ▶ 삼성아이엔비(주) 대표이사 방윤덕은 최근 공장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294-17로 이전했다.
- ▶ 한일종합인쇄(주) 대표이사 김상실은 최근 사업장을 경남 함안군 군북면 모로리 705-3으로 이전했다.
- ▶ 반디컴(대표 원도상)은 최근 사업장을 중구 필동3가 28-30으로 이전했다.
- ▶ 두원금박인쇄(대표 윤한조)는 최근 사업장을 중구 초동 45-2로 이전했다.
- ▶ (주)비오스컴(대표이사 이상현)은 최근 사업장을 서대문구 창천동 13-107로 이전했다.
- ▶ 금강기획(대표 윤봉중)은 최근 사업장을 금천구 시흥동 814-16으로 이전했다.
- ▶ 유림(대표 김주옥)은 최근 사업장을 충무로4가 32-16 영신빌딩 302호로 이전했다.



쇄조합은 중구의 인쇄산업지구 조성, 쇼핑몰사업 활성화 등 굵직한 사안들을 진행해왔다. 앞으로도 더 많은 활동을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인쇄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임 간사장으로 선임된 김영길 사장은 “2011년 입찰이 시작되었다. 올해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저가입찰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러한 매일수록 인쇄인 모두가 힘을 합쳐 제값받기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어렵지만 다 같이 한다면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으며, 나머지 임원선출은 신임간사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대구출판산업단지 분양신청 접수

대구도시공사는 남대구IC 일대에 조성되는 대구출판산업단지 내 지원시설 용지와 균린생활시설 용지 등 모두 39필지에 대한 분양신청 접수를 구립 21일과 22일 공사 2층 대강당에서 실시했다.

이번에 분양되는 토지는 지원시설 용지 16필지와 균린생활시설 용지 20필지, 주차장 용지 3필지 등으로 이 가운데 지원시설 용지는 추첨으로, 나머지는 경쟁입찰로 분양한다. 2012년 상반기까지 남대구IC 일대 24만6천여㎡에 들어설 예정인 대구출판산업단지는 출판, 인쇄업체와 서적도매업체 등 인쇄와 관련된 다양한 업종에서 입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의_ 053-350-0341~4

포장협회, 포장지용 인쇄지 무효 소송서 최종 승소

한국포장협회(회장 윤영우)는 포장지용 인쇄지 제조방법 및 이에 의한 포장지용 인쇄지 특히 무효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했다고 밝혔다. 포장협회는 지난해 11월 26일 대법원으로부터 이 사건에 대한 김도언 특히 출원자의 상고를 기각하여 동 특허의 등록 무효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7년 그린화학 김도언 씨에 의해 특허가 출원된 이후 포장협회가 진행한 특히 무효 소송이 마무리됐다. 포장협회는 범용적으로 사용되던 기술임에도 기술적인 진보없이 변용에 불과하다는 것을 객관성 있는 자료를 통해 인정받은 것 같다고 밝혔다.

한은, 재미있는 화폐 기획전 개최



한국은행(총재 김중수)은 구립 10일부터 한국은행 화폐금융박물관에서 ‘돈일까? 아닐까? 재미있는 화폐’라는 주제로, 세계 각국에서 발행된 화폐 중 재미있고 특이한 화폐를 선별해 전시한다고 밝혔다. ‘돈일까? 아닐까? 재미있는 화폐’라는 주제로 전시되는 이번 기획전에서는 세계 각국에서 발행된 화폐 중 재미있고 특이한 화폐를 볼 수 있다. 한국은행은 ‘지폐는 네모’, ‘주화는 원형’이라는 일반적인 고정관념과는 다르게 재질과 모양, 크기와 형태 등이 특이한 화폐들을 소개한다. 전시기간은 구립 10일부터 2011년 11월 30일까지로 한국은행 화폐금융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관람할 수 있다.

인쇄·프리프레스뉴스

외환은행-한국후지제록스 통합메일센터 운영 혁신 프로젝트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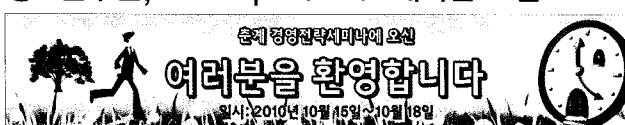
한국후지제록스(대표 정광은)는 외환은행(은행장 래리 클레인)과 구립 17일 서울 중구 정동 한국후지제록스 본사에서 김수현 외환은행 부행장과 황인태 한국후지제록스 영업본부장

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메일센터 운영 혁신 프로젝트’ 업무 제휴를 위한 조인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한국후지제록스는 이번 조인식을 통해 외한은행이 청구서, 고지서, DM(다이렉트 메일) 등 고객 대상의 문서 업무 전체를 총괄하기 위해 구축하는 DM 센터를 향후 4년간 운영하며, 문서 제작에서부터 발송, 관리에 이르는 모든 업무를 일괄 수행할 예정이다. 총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후지제록스의 디지털 인쇄 시스템과 솔루션, 그리고 전문 인력이 투입된다. 외한은행은 새롭게 구축하는 DM 센터를 통해 고객 맞춤형 우편물을 제작하고, 고객 개개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메시지와 정보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존에는 분산되어 있던 DM 업무를 일원화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고객정보 보호 강화는 물론이고 업무 생산성 또한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외한은행 김수현 부행장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고객정보 보호 환경을 한층 강화하고 맞춤형 정보를 담은 DM으로 고객에게 보다 높은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인태 한국후지제록스 영업본부장은 “한국후지제록스는 MPS(통합출력관리서비스) 뿐만 아니라 DM, 전자문서 등 기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서를 대상으로 한 보다 포괄적인 문서 관리 아웃소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대기업, 금융회사, 정부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고객 서비스 경험에 기반을 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노하우로 앞으로도 기업의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에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도솔루원, WebTop Banner 대리점 모집



(주)성도솔루원(대표이사 김상래)은 웹상에서 쉽게 현수막과 배너를 쉽게 만들어 주문할 수 있는 현수막전용 주문제작 솔루션인 ‘WebTop Banner’의 지역별 대리점을 모집하고 있다.

성도솔루원은 최근 작업을 되돌리고(undo) 앞돌리는 기능을 추가하는 등 작업의 편리를 더하도록 WebTop Banner를 업그레이드했으며 지난 코사인전에서 현수막 업계에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현재 서울, 성남, 수원, 논산, 전주 등 업체들에서 설치되어 웹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수막 전용 ‘WebTop Banner’는 인쇄주문시스템, 웹하드 기능인 이미지하드, 웹편집기, 홈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어 소비자가 직접 현수막을 제작, 교정, 수정하여 주문할 수 있어 도입업체에서는 메일로 교정지를 보내고 전화로 주문받는 번거로운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도입업체 관리자모드에서 웹편집기가 소비자와 1대1로 공유되어 주문제작도 가능하다.

WebTop Banner에 대한 상세 내용 및 다양한 편집 기능은 <http://banner.iedit.net> (실사출력 전용)에 접속하면 직접 사용 경험이 가능하다. 성도솔루원은 보다 지역별 원활한 서비스와 관리를 위해 지역 대리점을 모집, 많은 업체의 참여를 예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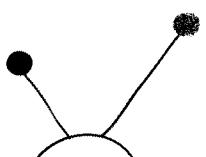
성도GL/성도솔루원, 전문가 초청 특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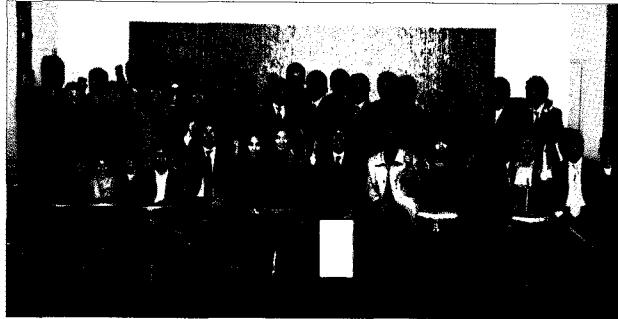
(주)성도GL/(주)성도솔루원(대표이사 김상래)은 지난해 11월 인협 유창준 전무 등 업계 전문가를 차례로 초청해 특강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대한인쇄문화협회 유창준 전무의 ‘인쇄 산업의 현재와 미래 & 대응방안 _ 산업현황 및 전망을 중심으로’를 시작으로, 인쇄산업신문 박종세 대표의 ‘미디어의 역할과 인쇄업계 현황’, 인쇄계 안혜정 이사의 ‘인쇄업계 표준화의 필요성 및 글로벌 표준화 현황 & 한국 시장 현황’이라는 강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성도GL은 이번 특강은 업계의 현재와 미래를 조명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지속적인 업계의 방향 및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성도GL/성도솔루원, Arts Friends 개최



(주)성도GL/(주)성도솔루원(대표이사 김상래)은 구립 10일 파주 헤이리 마을의 미술관 공간 퍼플에서 한국 메세나 협의회와 함께 “Arts Friends”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Arts Friends” 프로그램은 한국 메세나 협의회가 기업과 함께 예술 공연의 진흥과 직원들의 공연관람을 통한 문화전파를 위해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다양하고 수준 높은 공연 진행으로 이름나 있다. 이번 공연은 ‘두들쟁이 타래’라는 제목으로 피리, 해금, 대금, 아프리카 타악기 등을 이용한 관람과 체험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주)성도GL/(주)성도솔루원은 앞으로도 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사회공헌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성도GL/성도솔루원, 한국 트레킹 학교 교육 이수



(주)성도GL/(주)성도솔루원(대표이사 김상래)은 구립 4일 관악산에서 전 직원 교육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관악산 트레킹 체험과 성숙한 산행 문화와 안전한 산행을 위하여 한국 트레킹 학교에서 진행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주)성도GL/(주)성도솔루원은 등산을 통한 심신의 단련을 위

하여 이번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이런 단련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으로 삼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HP, 이미징프린팅그룹장에 임진환 부사장 선임

한국HP(대표 스티븐 길)는 구립 16일 이미징 프린팅 그룹(Imaging Printing Group)장으로 임진환 부사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임진환 부사장은 1월 3일부터 한국HP 이미징 프린팅 그룹의 성장을 위해 컨슈머 및 중소기업, 대기업을 비롯한 그래픽 시장에 이르는 이미징 프린팅 제품과 전산용품 및 소프트웨어, 솔루션 전반 비즈니스를 지휘하게 된다.

이번 선임과 관련하여 HP 아태 및 일본 지역 이미징 프린팅 그룹 존 솔로몬(John Solomon) 수석 부사장은 “한국은 아태지역을 대표하는 시장 기회가 큰 국가며, 임진환 부사장의 한국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기반으로 한 냉철한 경영능력과 현 임직원들의 혁신적인 시장 전략이 함께 한다면 한국 내 이미징 프린팅 그룹 비즈니스에 새로운 성장을 이끌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임진환 부사장은 1990년 IBM에 입사 금융부문B2B 영업, 마케팅, HR 부서 등에서 2005년까지 16년간 근무했으며,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삼성전자 B2B영업 총괄, 솔루션 사업팀 국내 영업 총괄을 거쳐 공공커머셜 그룹장 상무를 역임했다.

한국후지제록스, 대학생 후원금 1천만 원 전달

한국후지제록스(대표 정광은)는 구립 9일 서울 성북구 평창동에 위치한 민간 비영리 단체 희망제작소에서 진행된 후원행사에서 대학생 사회적 기업가



양성 프로젝트인 ‘희망별동대’ 지원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

다고 밝혔다.

한국후지제록스는 지난 한달여 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위터를 기반으로 ‘희망별동대’를 후원하기 위한 희망펀드 캠페인을 실시했다. 희망펀드는 희망별동대에게 응원 메시지를 남기거나, 응원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리트윗(전달) 할 때마다 한국후지제록스에서 1인당 2천 원씩 기부금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황인태 한국후지제록스 영업본부장은 “트위터에서 5천명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2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했으나,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적극 동참해주셔서 한달 반만에 1천만원 모금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국후지제록스는 단순히 후원금을 모금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에노 야스아키 한국후지제록스 사장을 포함한 임직원이 희망별동대가 진행하는 북촌 공정여행에 이 달 초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또한, 태풍 곤파스로 피해를 본 농민을 위한 유통 판로를 개척해주는 희망별동대를 지원하기 위해, 이들이 판매하는 낙과나 흡집난 B급 농산물을 한국후지제록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구입하고 있다.

한국HP, ‘HP e차장이 쓴다’ 크리스마스 이벤트

한국HP(대표 스티븐 길)는 구립 16일 이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프린팅 가능한 HP ePrint 출시를 맞아 커피 전문점 ‘세븐몽키스 커피’와 ‘주 커피’에 설치된 HP e-복합기로 무료 커피 쿠폰 2천장을 전송하는 <HP e차장이 쓴다>크리스마스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HP ePrint’는 HP복합기에 이메일 주소를 부여해 이메일 전송이 가능한 디지털기기에서 복합기로 직접 이메일을 보내면 실시간으로 출력물을 전송 및 확인할 수 있는 차세대 프린팅 솔루션이다.

이번 이벤트는 HP e차장이 크리스마스를 맞아 서울 시내

주요 지역에 입지한 ▲‘세븐몽키스 커피’ 12개점 학동점, 삼성점, 도심공항터미널점, 압구정점, 선릉점, 역삼스타타워점, 역삼아모제, 이수역점, 논현역점, 남부터미널점, 성신여대점, 사가정점 및 ▲‘주 커피’ 8개점 신사점, 논현역점, 신논현점, 압구정로데오점, 역삼점, 방배동카페골목점, 서울대점, 압구정델리점의 매장에 설치된 HP e-복합기로 이메일을 통해 무료 커피 쿠폰을 보내주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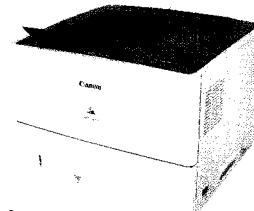
매장을 방문한 고객들은 매장에 설치되어 있는 HP e-복합기에 출력 되어있는 커피 쿠폰을 받아 HP 이벤트 웹페이지에 접속 후, 쿠폰에 적힌 10자리 번호를 입력하면 100% 당첨 무료 커피 쿠폰이 지급된다.

홈페이지_ www.hp.co.kr/ePrint

신제품·제품관련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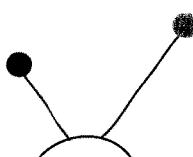
캐논코리아, 중대형 사무실용 프린터 출시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대표이사 김천주)은 구립 2일 고속 A4 레이저 프린터 LBP6750dn을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된 LBP6750dn은 중대형 사무실에서 사용하기 적합한 제품으로, 1분에 40장을 출력할 수 있고 최대 1600매의 용지적재는 물론, 많은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프린팅 기능도 기본 지원된다.



또한, 캐논의 독자적인 ‘On-Demand 정착방식’을 채용해, 토너를 용지에 정착시키는 정착부를 순간적으로 가열할 수 있다. 이 기술로 워밍업 없이 바로 출력할 수 있고, 대기 시에는 최소 소비전력을 유지해 주기 때문에 경제성이 뛰어나다. 출력업무의 효율을 높이는데 필수적인 자동양면인쇄장치, 대형 출력물을 A4사이즈에 나누어 출력하는 포스터 인쇄 기능도 지원된다.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 관계자는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절전형 출력방식으로 그린 오피스에 적합한 기술과 필수적이고 편리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자원낭비를 가시적으로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할 것”라고 말했다.





후지제록스 프린터스, 핑크 예약 할인 이벤트



후지제록스 프린터스(대표 황유천)는 구립 7일 신제품 출시를 기념하며 ‘핑크 예약 할인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후지제록스 프린터스는 구립 2일 신제품 발표회를 통해 총 6종의 컬러/모노 S-LED 프린터 및 복합기를 새로 선보였다. ‘핑크 예약 할인 이벤트’는 그 중 초소형 모노 S-LED 프린터(모델명: DocuPrint P205b)의 핑크컬러 구매 예약고객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벤트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제품을 구매 예약하는 고객들 중 선착순 500명에게 부가세 포함 9만9천원의 할인가가 제공될 예정이다. 기존 소비자 가격은 15만 원선이다.

이와 더불어 ‘구매등록 이벤트’ 및 ‘트위터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후지제록스 프린터스는 이번 신제품을 구매한 고객이 이벤트 페이지에 제품 등록을 하면 그 중 90명을 추첨해서 아이패드, A4용지 한 박스 등의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새롭게 오픈한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한 사람 중 이벤트 공지 글에 댓글을 달는 선착순 100명을 대상으로 ‘100% 당첨 커피 전문점 기프트콘’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핑크 예약 할인 이벤트’의 주인공인 초소형 모노 S-LED 프린터(모델명: DocuPrint P205b)는 후지제록스 프린터스의 새로운 S-LED 기술과 EA-Eco 토너 탑재로 기존 프린터 대비 뛰어난 인쇄 품질을 자랑하며 에너지 전력 소비를 최대 40%까지 절감할 수 있다. 분당 인쇄속도는 최대 24장까지 가능하며 1200×1200 dpi의 높은 해상도의 인쇄가 가능하다. 특히 프린터 업계 최초로 핑크 컬러를 도입해, 업계로부터 신선하고 획기적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홈페이지_ www.businessmind.co.kr/SmartMini

트위터_ twitter.com/FXP_Korea

후지제록스 프린터스, S-LED 프린터 출시

후지제록스 프린터스(대표 황유천)는 구립 2일 세계 최소형 컬러 S-LED 프린터를 포함, 총 6종류의 신제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시되는 모델은 컬러와 흑백용으로 나뉘며 프린터에서 복합기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컬러 프린터: DocuPrint CP105b / DocuPrint CP205, 컬러 복합기: DocuPrint CM205b, 흑백 프린터: DocuPrint P205b, 흑백 복합기: DocuPrint M205b)

그 중 세계 최소형 컬러 S-LED 프린터 모델인 ‘DocuPrint CP105b/CP205/CP205W’는 슬림한 디자인과 다양한 컬러 선택 폭으로 다른 경쟁 제품과의 차별화를 시도했다. 컴팩트한 프린터 헤드를 장착해 제품 전체 크기를 줄임으로써 공간 절약에 중점을 뒀다. 이와 더불어 핑크색 컬러를 사용하는 등 디자인을 강조해 단순한 사무기기가 아닌 스타일리시한 공간 연출을 위한 아이템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출판뉴스

대한민국출판문화상 대상 선정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백석기)는 구립 17일 제1회 ‘대한민국 출판문화상’ 출판문화대상으로 ‘동아시아 언론매체 사전’을 선정해 시상했다. 출판사 논형이 폐낸 ‘동아시아 언론매체 사전’은 심사위원들로부터 동아시아학의 새로운 인프라를 개척했다는 평을 받았다.

부문별 우수작을 뽑는 ‘출판상’ 금상은 학술전문 ‘법원과 검찰의 탄생’(역사비평사), 아동청소년 ‘백창우 아저씨네 노래창고’(보리), 실용 ‘인연으로 밥을 짓다’(타임POP)에게 돌아갔다.

아갔다. 부문별 저자를 대상으로 수여하는 ‘저작상’은 일반교양 ‘종의 기원, 생명의 다양성과 인간 소멸의 자연학’(그린비)의 박성관, 학술전문 ‘사제와 광대-중세 교회문화와 민중문화’(문학과지성사)의 유희수, 아동청소년 ‘꽃할머니’(사계절 출판사)의 권윤덕, 실용 ‘잘생긴 녹색 물건: 지구를 부탁해’(디자인하우스)의 김연희씨가 받았다.

대한민국 출판문화상은 그 동안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시상해온 ‘출판문화대상’과 ‘한국어린이도서상’을 통합한 상으로 2009년 제정됐다. 상금은 출판문화대상 500만원을 비롯, 총 3700만원이다.

한국전자출판협회, 2010 디지털출판포럼 개최



한국전자출판협회(회장 최태경)는 구립 14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2010 디지털출판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최근 전자책 업계의 현황과 향후 전략에 대해 의견을 모으는 자리였다. 1부에서는 이중호 북센 본부장이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전자책 지원사업 일환으로 진행된 ‘표준 전자책 제작 및 뉴미디어 연계 전자책 콘텐츠 서비스 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아울러 웅진씽크빅과 샘앤파커스의 모바일 전자책 애플리케이션 개발 사례도 발표되었다. 2부에서는 스포크시스템즈의 ‘다국어 멀티미디어 전자책 제작 사례’를 소개다. 이 업체는 최근 ‘삼성앱스 공모전’에서 혁신적인 전자출판 솔루션 사례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어 어도비의 ‘디지털 퍼블리싱 솔루션’도 소개되었다.

장기영 한국전자출판협회 사무국장은 “디지털출판포럼을 통해 표준 전자책 제작 및 뉴미디어 연계 콘텐츠 서비스 사업에 대한 출판사와 디지털콘텐츠 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멀티미디어 전자책 콘텐츠 제작 관련한 실질적 내용을 제공한 자

리였다”며 “이번 포럼은 디지털 출판 산업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출판인회의, 2010 출판인의 밤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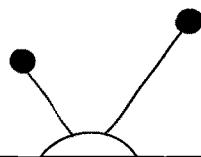


한국출판인회의(회장 한철희)는 지난해 11월 30일 연세대 동문회관에서 한 해를 갈무리하고 2011년을 다짐하는 ‘올해의 출판인상 시상식 및 출판인의 밤’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양성우 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장, 나기주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장은 비롯해 한철희 한국출판인회의 회장 및 회원사 대표 등 약 5백여명의 출판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추구해야 할 출판 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철희 한국출판인회의 회장은 인사말에서 “한 시대의 지식과 정보를 담아내는 그릇인 ‘출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인류 역사 속에서 그 산업적 위상과 문화적 가치를 더욱 높여왔고, 스마트폰과 e북시대의 화려한 개막 속에서 그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올 한 해도 책의 밭을 기름지게 일구고자 노력한 모든 분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의 출판인상은 매년 책 문화와 출판산업 각 영역에서 두드러진 성취를 이룬 분들께 그 노고를 빛내기 위해 선정하는 상인만큼 올해도 매우 훌륭한 분들을 수상자로 모시게 돼 더욱 기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시상식에는 올해의 출판인상 본상은 더난출판, 북로드의 신경렬 대표, 공로상은 도서출판 들녘의 이정원 대표와 독서대학 르네21 운영위원장 김한승 신부가 수상했고, 편집부문상은 보림출판사 최정선 기획위원, 마케팅부문상은 (주)김영사의 서재근 본부장, 디자인부문상은 (주)휴머니스트출판그룹의 김태형 아트디렉터가 각각 수상했다.



제자|뉴스

컨트롤티유니온, 사유림 인증 본격 추진

컨트롤티유니온씨티피케이션코리아(대표 얀 시퍼)는 국내 사유림 인증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측에 따르면 산림조합 중앙회를 비롯, 순창산림조합, 임실산림조합 등이 1차로 신청 및 인증을 받은데 이어 2차로 삼척산림조합, 강릉산림조합이 인증을 받았으며 현재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포럼(한국FSC NI), 환경연합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컨트롤티유니온씨티피케이션코리아의 관계자는 지난해 1차 심사가 완료된데 이어 2차 심사는 오는 1월 17일부터 22일로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무림SP, 고품질 러프글로스지 '르느와르' 출시

무림SP(대표 김인중)는 최근

고품질 러프글로스지 '르느

와르'를 출시, 인쇄용지

의 고급화를 선언하며 차

별화된 프로모션을 펼치

고 있다. 신제품 '르느와

르'는 우수한 인쇄적성과 빠른 잉크건조성에 원지의 요철이 그대로 살아 숨 쉬고 거칠면서도 포근한 느낌을 갖고 있다. 당대 최고의 인상파 거장이었던 르느와르의 명성에 걸맞는 종이답게 명화의 느낌까지 고스란히 재현해내는 풍부한 색감을 자랑한다고 밝혔다.

고급 출판물, 잡지, 화보, 카탈로그, 명함, 브로슈어, 캘린더 등에서의 수요를 '르느와르'는 현재 백색(Natural white), 고백색(Extra white)의 두 종류가 공급되고 있으며 평량은 90~230(g/m²)이다. 무림SP의 관계자는 '르느와르'는 최고급 VIP고객을 겨냥하여 종이 재질에 고급스러움을 실현하고, 손끝으로 느껴지는 고급스러운 면감과 선명한 색상 재현성 및 속건성으로 고가의 수입지 시장을 대체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고급스러움과 품질, 클레임에 대한 100% 보상 등 철저한 프로모션을 약속해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예술 종이'의 진수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림페이퍼 진주공장, 사랑의 김장 담그기



무림페이퍼(대표 김인중) 진주공장은 구 lập 11일 '사랑의 김장'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사랑의 김장 담그기는 무림의 사회봉사단 '무림사랑나누미'를 주축으로 매년 진행해온 것으로 진주복지원에서 실시했다. 무림사랑나누미는 2천 포기의 김장김치를 연말연시 소외계층에 전하며 따스한 이웃사랑을 나눴다. 무림은 '무림사랑나누미'를 통한 이웃사랑 나눔과 '무림메세나'를 통한 지역 문화예술 지원사업 등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무림, 희망 저금통에 온정 담아

무림(대표 김인중)은 희망의 저금통으로 연일 계속되는 한파를 물리칠 따뜻한 이웃사랑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희망 저금통은 올해 초 시무식 때 호랑이 해를 맞아 호랑이 모양의 저금통으로 기운찬 새해를 시작하고자 직원들에게 선물한 것으로 특히 무림 직원들이 새해각오를 담아 기운찬 시작을 다짐



했던 '희망 저금통'에 그간 각자의 온정을 담아 어려운 이웃에게 되돌려준다는 뜻이 담겨있어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무림은 이번 희망저금통을 통한 모금액과 매월 급여에서 자투리 금액을 모은 성금을 합해 어려운 이웃에게 온정을 전할 계획이다.

한국제지, 경영혁신활동(BIC) 발표대회 금상수상



한국제지(대표 김창권)는 구립 9일 각 관계사가 참여한 경영혁신활동(BIC, Best In Class)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연구 2팀 박용진 연구원 외 3명이 발표한 '고회분 유광지 개발'이라는 주제가 금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연구 2팀은 체계적 연구와 활동을 통해 유광지의 회분함량을 기존 26%에서 World Best 수준인 30%까지 상향하는 제품을 개발하여 펠프 사용량을 절감하고 영업이익을 향상시켰다는 점에서 참가 5팀 가운데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기업 비전 실현을 위한 총체적 경영혁신활동(BIC)의 추진 기본원칙은 성과 구현주의, 도전적 목표 설정, 전체 최적화, 전담 프로젝트팀 운영, Top의 현장경영이며 각 관계사는 이 활동을 통해 주요 과제를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문제해결하고 최적의 사업성과를 도출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제지, 김장용 배추 사회복지단체 기증



한국제지 온산공장은 구립 1일 1사 1촌 자매결연마을인 하회마을 주민들과 가을부터 함께 키워온 김장용 배추 약 400포기를 수확, 기증했다고 밝혔다. 수확된 김장용 배추는 어려운

이웃들이 겨울을 지낼 수 있는 김장을 담을 수 있도록 중증 뇌성마비 장애인단체인 덕하리 나눔터에 50포기, 사회복지법인 동향원에 350포기, 총 400포기를 전달했다. 한국제지 관계자는 배추들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제지, 목표관리제 대응 사내교육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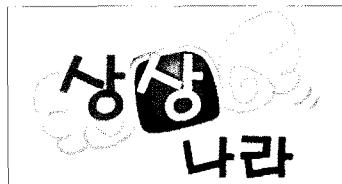
한국제지(대표 김창권)는 2011년부터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의 시행에 따라 실적보고 및 감축목표의 이행 등 제반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목표관리제에 대한 사내 인식 공유 및 부서별 사전 준비사항 등을 전략기획팀 주관으로 사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미 구립 13일과 16일 본사와 공장에서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응 사내교육을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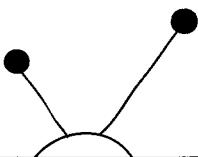
한솔제지, '상상나라' 본격 운영

한솔제지(대표 오규현)는 아이디어가 살아 움직이는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본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를 공모하는 '상상나라' 시스템을 구축, 구립 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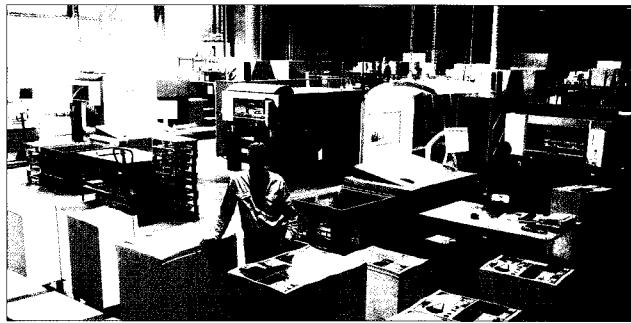
한솔제지 아이디어 제안 제도는 업무개선, 신제품 개발, 신사업 진출, 고객가치창출 등 회사 및 업무와 연관된 아이디어를 '상상나라' 시스템을 통해 제안하면 이를 회사가 심사해 업무 개선 등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면 채택, 적용하는 프로세스로 운영된다. 한솔제지는 아이디어 제안 활성화를 통해 경영 효율성 제고, 고객가치창출 등의 유형 효과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창의력 발산 및 자기 발전 등 무형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외뉴스

프랑스 인쇄사, 스피드마스터 XL 75 3대 도입



프랑스 인쇄 회사 IDMM은 최근 3대의 스피드마스터 XL 75 인쇄기를 리옹 근교에 위치한 새 공장에 1대의 XL 75, 4도 기와 2대의 5도기를 설치했다. 3대 모두 코팅 유니트와 분광 광도계식 인라인 측정 시스템인 프리넥 인프레스 콘트롤(Prinect Inpress Control)을 갖추고 있다.

IDMM의 사장은 “시장의 인쇄량이 줄어들고 단통이 늘어남에 따라 최고의 품질을 보장하는 동시에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회사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었다”며 “스피드마스터 XL 75 인쇄기는 인쇄 속도, 빠른 판 교환 및 인쇄 품질의 요구를 만족시킨다”고 만족을 표했다. 이어 그는 “3대의 새 스피드마스터 XL 75 인쇄기는 우리의 설비를 표준화시켰으며 보다 유연하게 만들었다. 3대 중 어떤 것에도 작업을 인쇄할 수 있으며 동일한 훌륭한 결과를 얻을 것이라 항상 확신할 수 있다. 작업 준비 시간을 훨씬 짧아 약 20%의 생산성이 향상되었다고 추정한다”고 말했다. 하이델베르그의 프리넥 인프레스 콘트롤은 가동 중 편맞춤과 색상 품질을 조정할 수 있어 잉크 올림이 거의 모든 작업에서 100매 이하만 필요해 IDMM사는 가동 2달 만에 인쇄 시작 손자를 50%까지 줄였으며 추가적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손자의 감소에 따라 CO₂ 배출도 50%의 감소를 실현하고 있다.

중국 하이델베르그, 1000번째 기계 생산

최근 중국 하이델베르그사에서 1000번째 기계를 중국 낭창에 있는 Jinangxi Jinrui Printing 사에 출고했다고 밝혔다.



하이델베르그 CEO 베른하르트 슈라이어는 “중국에 기본형 기계 생산을 위한 자체 시설을 세우겠다는 전략은 수익을 거두고 있다”며 “현지 시장내 위치를 강화할 수 있었으며 중국 내 판매되는 모든 하이델베르그 기계의 약 3분의 1이 여기 청푸에서 조립된다”고 말했다. 1000호기를 구입한 Jinangxi Jinrui Printing사의 주 카일린 사장은 “중국 인쇄 시장과 고객 사이에서 품질에 대한 요구가 늘어가고 있음을 확인으며 이러한 품질을 필수적인 신뢰성과 함께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이델베르그의 기계와 서비스에 의존 한다”고 말했다.

하이델베르그는 지난 2005년에 청푸에 공장을 설립, 접지기 생산을 시작했으며 2006년에 중국 시장에 판매될 A3 인쇄기 생산을 시작했다. 2차 확장 이후, 하이델베르그는 T3절 인쇄기의 생산을 시작했으며 2009년 중순부터 대국전 인쇄기의 생산도 시작한 바 있다.

하이델베르그, 금융 서비스 부분 높은 평가 받아

하이델베르그는 지난 2010년 11월 이태리 밀라노에서 개최된 금융 잡지, ‘Leasing Life’가 주최한 올해의 자산 금융상 시상식에서 하이델베르그 파이낸스 서비스 부서가 ‘2010년 올해의 자체 금융 공급사’로 명명됐다고 밝혔다. Leasing Life는 리스와 자산 금융 부분에서 선도적 유럽 금융 잡지이다. 자산 금융상은 2007년 처음 만들어져 가장 성공적인 회사와 전문가의 서비스를 기념하도록 했다.

‘2010년 올해의 자체 금융 공급사’로 선정된 것은 하이델베르그의 팀이 다양한 부분의 국제적으로 저명한 회사들에 앞섰음을 의미한다. 많은 자체 금융 공급사들은 회사의 전략적 목표를 추구하고 실현하는데 성공적 지원을 했는가에 따라 평가되었다.

Quentin Press, 매그너스800 도입으로 친환경 및 비용 절감 효과

Gemini Group의 Quentin Press는 CTP솔루션을 코닥 매그너스 800 플레이트세터와 코닥 서멀 다이렉트 논 프로세스 플레이트로 교체, 친환경 경영과 비용 절감 효과를 통해 경영부문에서 큰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환경친화적 생산 향상을 위해 매그너스 800 플레이트세터와 서멀 다이렉트 논프로세스플레이트를 도입한 Quentin Press의 Paul Dupret 경영 이사는 “코닥의 시스템은 자사가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회사가 될 것이라는 목표를 실감하게 해줬으며 혁신적인 솔루션은 또한 자사의 오퍼레이션을 확장시키고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도왔다”고 말했다. Quentin Press는 최근 잡지를 인쇄하는 자매회사인 Ghyllprint과 합병, 잡지, 저널, 안내책자, 카탈로그 출판업자들에게 인상 깊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Quentin Press는 문구류, 공동 담보물, 회사 브로셔와 뉴스레터를 제공하고 있다.

Drukkerij De Bie사

코닥 넥스프레스 · 프리너지 도입으로 생산성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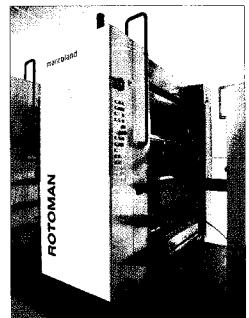
Drukkerij De Bie사는 코닥 넥스프레스 프로덕션과 매그너스 프레이트세터, 프리너지 워크플로 등을 도입한 이후 생산성 향상등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개인 달력과 메일링, 상업용 인쇄와 잡지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Drukkerij De Bie 사의 Bart De Bie이사는 “몇 년 전, 우리가 갖고 있던 CTP 장치는 더 이상 필요량을 다루지 못해 새로운 플레이트세터가 필요했으며 다른 많은 옵션들을 테스트 해봤지만 KODAK 솔루션은 비용측면에서 경쟁적이었고 결정적으로 품질이 나머지에 비해 두드러지게 뛰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코닥 매그너스 플레이트세터에 투자한 뒤 얼마 후 프리너지 워크플로시스템을 시행하기로 결정했으며 최종적으로 코닥 넥스프레스 도입했다고 소개했다.

Drukkerij De Bie사는 “우리는 최상의 시기에 코닥 프리너지 워크플로 시스템에 투자했으며 솔루션은 PRINERGY System과 매끄럽게 통합하는 일을 시작하기 위한 KODAK INSITE Prepress Portal System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중국 센진의 토판 리평 프린팅사 로토만 도입

만로랜드는 중국의 토판 리평 프린팅사가 자사의 고품질 윤전인쇄기로토만을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하게 될 로토만은 16페이지 싱글 웹으로 릴스플라이서와 4개의 인쇄 유닛, 폴더로 구성되어 있다. 토판사는 오는 2012년 초부터 로토만을 통한 실제 생산에 들어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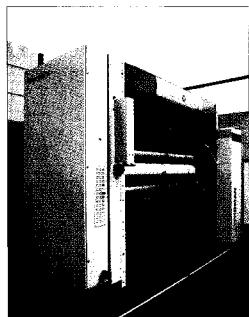


예정이며 빠른 작업 속도와 다양한 접지의 유연성으로 고객의 기대를 충족 시킬 것을 기대하고 있다. 만로랜드는 로토만은 PPL(PowerPlateLoading) 시스템을 장착하였으며 에프터버너가 내장된 건조기를 통해 보다 나은 생산성과 손지 감소 및 에너지 절약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판사는 엘르 차이나, 보그 차이나, 레이 차이나, HIM 차이나, 바자 차이나, 마리 클레르 차이나 등을 생산하고 있다.

로토오프셋, 96페이지 리토만S 도입

독일 뮌헨클라바의 TSB 그룹은 라이프치히 근교의 운터카카에 소재한 로토오프셋사를 통하여 96페이지 리토만 S를 도입, 인쇄작업의 생산성을 증대시켰다고 전했다. 리토만은 주로 소매 유통 시장의 인서트를 생산하게 되는데 로토오프셋사는 현재까지 한대의 80 페이지와



두 대의 48 페이지 윤전기를 가동해 왔다. 이번 도입으로 로토오프셋사는 시간당 432만 페이지를 더 생산하게 되었다.

로토오프셋 사의 사장 우도 보그너 박사는 “이번 투자를 통하여 우리는 다양한 인쇄물을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 것이며 시간 절감과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 그리고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다양한 페이지의 제품을 생산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리토만 S는 한 개의 릴스플라이서, 네 개의 인쇄 유닛과 다양한 페이지 인쇄가 가능한 두 개의 폴더로 구성되어 있다.